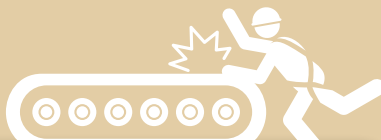




하청업체 **산재** 줄이는 방법 있다?





2018년,
화력발전소 협력업체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故김용균씨
사망과 더불어 더욱 화두가 된
“위험의 외주화”



하청업체의 산업재해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청노동자의
산재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하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원청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정부는 2018년 하청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란?

원청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원·하청을 합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원청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로, 2019년말 원청 사업장 명단이 처음으로 공표될 예정이다.



하청 노동자의 모든 작업을 파악해야
하는 원청 안전관리자들은
제도의 필요성(35.0%)과 효과성
(31.1%)이 낮을 것으로 평가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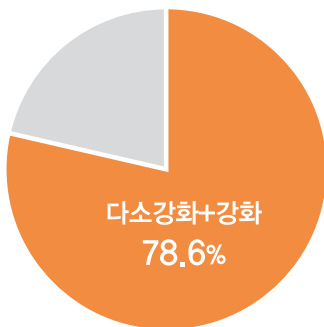


원청 경영진들의
74.8%는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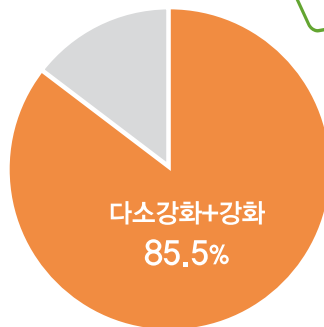


제도 시행 대상 사업장 (302개)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 시행 이후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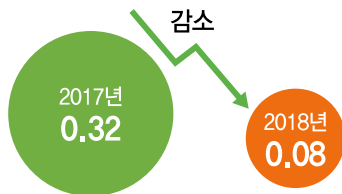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고무적인 것은,
1천명 이상 원청 88곳의 하청업체
사고사망만인율을 합한 **통합 재해율**
2017년 0.32에서 **2018년 0.08**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하청에 대한 원청의
안전관리 강화가 원청과
하청의 재해를 모두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출처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Ⅲ)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8)

※ 본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